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

□ LA항은 향후 5년간 자유 화물(Discretionary cargo) 보호가 핵심 목표	2
□ 인도네시아 IPC, 탄중프리옥항 확장 목적의 깔리바루항 건설 7월 착공	3
□ 호주, 멜버른항 확장 개발 계획	5
□ 브라질 터미널 개발 및 운영권 획득 경쟁	6

□ LA항, 향후 5년간 자유 화물(Discretionary cargo) 보호 추진

- LA항은 2011년 향후 5개년 계획(Five-Year Strategic Plan)을 발표하면서, 자유 화물(Discretionary Cargo)¹⁾의 지속가능한 유치를 최대 핵심목표로 설정함
 - LA항은 그 동안 Post Panamax급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미 동부 지역 화물을 유치(Land-Bridge) 하여,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
 - 특히, 2010년에는 LB(Long Beach)항에서 운영되던 HMM(Hyundai Merchant Marines)의 CUT (California United Terminals)가 LA항에서 운영되는 APM Terminals의 Pier 400으로 이전(일부 시설 재임대 사용)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임
 - 이러한 상황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이 LA항만 매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자유화 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해당 화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
- 자유 화물은 그 운송 절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(LA, LB)뿐만 아니라 캐나다, 멕시코 서안 및 인근 중남미 항만을 이용할 수 있음
 - 따라서 캐나다 및 중남미 항만 또한 지속적인 시설 확대를 통해 치열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경쟁 을 준비하고 있음
- 이러한 항만간 경쟁에 더해, 2014년 파나마 운하 확장이 완료되면, 많은 비중의 자유 화물이 all-water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 걸프만 및 동부 지역으로 직접 운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
 - Post Panamax급 선박 통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Pendulum 서비스 및 복합운송의 결합 보 다는 all-water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선사 입장에서 규모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
- 따라서 LA항은 자유 화물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고·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전략 동반자인 철도 및 육상운송 대리점·협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, 대외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향후 핵심 정책으로 설정
 -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항만시설의 지속적 개발, 전반적인 항만경쟁력 강화, 시장점유율 증대, 토 지 이용의 최적화, 관련 기술 개발, 작업문화 개선, 재정상태 공유 및 회계감사의 강화, 보조금 확 대 등을 마련할 계획임

자료 : www.lloydlist.com, 2012.4.20.

김근섭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46, gskim@kmi.re.kr)

1) Discretionary Cargo : 화물이 운송될 때, 양하지로의 운송루트, 경유지 등을 선사 임의로 정하여 운송하는 화물 을 의미함(Cargo news)

□ 인도네시아 IPC, 탄중프리옥항 확장 목적의 깔리바루항 건설 7월 착공

- 인도네시아항만공사(Indonesian Port Corporation, IPC)¹⁾는 탄중프리옥항의 혼잡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깔리바루(Kalibaru)항을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할 예정임
 - IPC 자료에 의하면, 2011년 탄중프리옥(Tanjung Priok)항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23% 증가한 580만 TEU로, 처리능력인 500만 TEU를 초과함으로써 신규 터미널 건설이 필요하게 됨
 - 처음 깔리바루항 프로젝트는 190만 TEU 규모의 신규 터미널 건설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가장 혼잡한 항만인 탄중 프리옥항의 확장 계획의 일부로서 시작됨
 -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개발 가속화 및 확장 마스터 플랜(MP3EI)²⁾의 일부로서 터미널 확장을 신규 항만 건설 계획으로 변경했음
 - 4월 초 대통령령으로 IPC를 단독 프로젝트 개발자로 발표함으로써 오래 기다려왔던 깔리바루항 건설이 시작되게 됨
 - 9개의 터미널을 포함한 깔리바루항은 금년 7월에 착공되어 2023년 완공 될 것이며, 뉴프리옥(New Priok)으로 명명될 것임
 - 이 항만의 건설로 탄중프리옥항의 처리 능력은 500만 TEU에서 1,800만 TEU로 3배 확장될 것임
- IPC 대표이사 리차드 주스트 리노(Richard Joost Lino)에 따르면 총 처리능력 1,300만 TEU의 깔리바루항은 3단계로 건설될 예정이며, 첫 번째 단계에 약 22.6조 루피아(약 24.7억 달러)가 투자되어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힘
 - 첫 번째 단계에는 450만 TEU 규모의 3개 컨테이너 터미널과 2개의 연료공급선석(Fuel Berth)이 개발될 예정임
 - 리차드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은 밝히지 않았으나, IPC는 10개 자회사와 함께 첫 번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
 - IPC의 내부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, 주요 선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와 인도네시아 또는 국제적인 채권자들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임³⁾
 -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최대 채권자인 만디리(Mandiri) 은행은 11.75조 루피아를 대출하기로 하였으며 2조 루피아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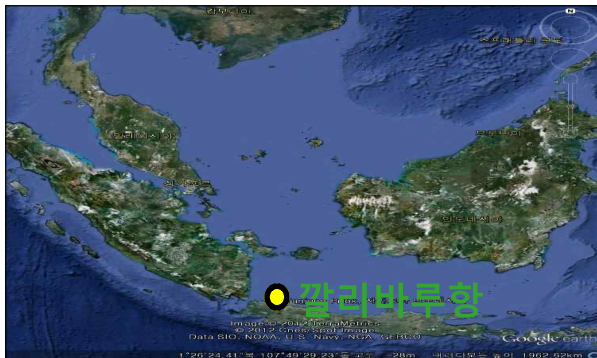
1)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운영사인 IPC는 Pelindo II라고 불림

2) Master 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n Economic Growth

3) 별도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 소유주 협회(INSA : Indonesia National Ship Owner Association)의 의장인 카르멜리타 하르토토(Carmrlita Hartoto)는 뉴프리옥(New Priok)항 건설은 매우 고무적이며 인도네시아 운송 및 물류 산업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함. 그리고 그는 물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크레인(Crane), 헤드 트럭(Head Truck), 창고(Warehousing)와 같은 기반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INSA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함

-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5년 내에 전략적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1,5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계획함
 - 깔리바루항은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이 될 것이며, 국가 전체 물류 처리능력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세계 주요 항만과 견줄 수 있는 생산성을 갖추게 됨
 - 게다가 IPC는 마룬다(Marunda)와 항만을 연결하는 유료도로와 치카랑드라이포트(Cikarang Dry Port)와 새로 건설되는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임

< 깔리바루항 위치 >



자료 : www.thejakartapost.com, 2012.4.24.

< 탄중 프리옥 항만 >



이언경 전문연구원 (02-2105-2919, eklee@kmi.re.kr)

□ 호주, 멜버른항 확장 개발 계획

- 호주, 항만부 장관(Minister for Ports)은 국가의 미래 경제를 발전시킬 주요 프로젝트로 120억 달러 규모의 멜버른항(Port of Melbourne) 확장 계획을 발표
 - 금번 개발은 호주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아(Victoria)주 멜버른항 웹(Webb)선석¹⁾의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및 스완슨(Swanson)선석의 기존 컨테이너터미널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로, 동 개발로 인해 항만의 수출을 증대 시킬 것으로 전망됨
 - 관계자에 따르면, 멜버른항의 전년대비 금년 수입은 약 4.9% 증가, 수출은 약 11%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힘
 - 이는 빅토리아주의 식품 및 섬유 수출이 2010년~2011년간 13억 증가한 약 8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, 특히 인도, 중국 등 아시아국가로부터 유제품, 곡물 및 육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
 - 이러한 수출입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멜버른항의 처리능력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적인 항만 인프라 사업이 제기됨
- 2010년에 멜버른항은 약 230만 TEU를 처리하였고, 2006년~2010년간 연간 3.4% 정도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항만시설을 개발할 예정
 - 이에 컨테이너터미널 처리능력을 웹선석에서 최소한 연간 1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, 스완슨 선석도 추가적인 인프라 개발을 통해 처리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임
 - 또한 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신규 윌리엄스톤(Williamstown) 도로를 통해 직접 웹선석으로 연결시켜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각 지역에서 빅토리아지역으로 운송되는 트럭을 점차 줄여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할 전망임
- 금번 멜버른항 확장 개발로 인해 빅토리아주에 7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및 간접적으로 향후 1,900개의 고용 파급효과가 예상

< 멜버른항 위치 >



<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위치도 >



자료: www.Worldmaritimenews.com/ 2012. 4. 27

황현주 연구원(☎ 02-2105-2982, julya7@kmi.re.kr)

1) 2016년 터미널 운영 개시

□ 브라질 터미널 개발 및 운영권 획득 경쟁

- 중남미 시장의 주요 국가인 브라질의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의 투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
 - 연속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브라질 항만 개발 및 운영권 입찰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중 올해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수아피(Suape)항과 마나우스(Manaus)항¹⁾의 운영권 획득에 APMT와 브라질 운영사인 Santos Brazil사와 경쟁 구도를 보임
 - 브라질 페르남부쿠(Pernambuco)주 정부는 수아피 항을 브라질 산업의 허브 지역으로써 발전시켜 환적화물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수아피항 복합물류단지는 약 13,500ha로 터미널 산업단지²⁾, 행정단지, 생태보존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음
- 또한 빠라(Pará)주에 있는 Quteiro항에 벌크터미널 운영권 입찰도 5월에 시작할 예정
 - 본 운영권 계약은 25년을 기준이며 면적은 약 200,000m²임
 - 추가적으로 창고와 곡물사이로를 확대하고 항구와 내륙 수로와의 연계를 구축
 - 발표된 운영권 입찰금액은 5억4,600만 달러임
-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상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루 북쪽에 위치한 '그린필드' 항만으로 불리우는 Porto Central 항만의 터미널 개발에 2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발표함³⁾
 - Porto Central 항만 개발 사업은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TPK(Terminal Presidente Kennedy) 및 Espírito Santo 주 정부가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이미 2010년 브라질 정부로부터 브라질 항만의 전략 검토를 의뢰받았음
 - Porto Central항은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항만운영 모델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기로 결정함
 - 개발될 터미널은 석유, 가스, 벌크화물 및 일반화물을 처리하며 계획단계로는 2012~2013년에 엔지니어링 설계완료 및 필요한 허가를 받고 2014~2015년까지 건설을 완료하여 2015년 말에 개항할 예정임
- 브라질은 2013년까지 운영권 계약이 만료되는 항만을 중심으로 운영권 입찰을 준비하고 있음
 - DP World는 산토스에 있는 Empresa Brasileira de Terminais 운영의 첫 단계로써 처리량 100만 TEU인 터미널을 2013년에 개장
 - 또한 Hambrug Süd 해운회사는 브라질의 Itapoá 항만의 지분 30%를 획득함

자료: www.hellenicshippingnews.com, www.portstrategy.com, 2012.5.1

전혜경 연구원(☎ 02-2105-2982, saeei@kmi.re.kr)

1) 국제물류위클리 제120호 참고

2) 수아피항에 산업단지에 있는 브라질 최대의 조선소 EAS(Estaleiro Atalantico Sul)가 경영난으로 인해 현재삼성중공업에 조선소의 위탁경영을 의뢰함

3) 국제물류위클리 제148호 참고

< 해외진출 예비타당성 무료조사 지원신청 안내 >

-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**예비타당성조사를 무료로 지원**하고자 합니다.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 지원 기업
 -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
 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- 지원 사업
 - 해외 물류센터, CY 및 항만 터미널 등 물류시설의 개발·투자·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
 -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·운영
 - 해외파트너사와의 JV 설립 및 해외물류기업(해운선사, 3PL, 터미널 운영사 등)의 인수·합병 등
- 지원 범위
 - 본 예비타당성조사에 선행하는 현지 물류여건, 물동량 전망, 개략적인 수익 및 운영비 등 **예비타당성조사 4건 내외** 지원 예정(단, 기업당 1건 지원)
- 지원 기간 및 방법
 - 지원 기간 : 2012.4.26~ 2012. 5. 11(금) 24:00
 - 지원 방법 : '해외진출 예비타당성 무료조사 지원신청서'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
 - 황현주 연구원(julya7@kmi.re.kr) 및 전해경 연구원(saeii@kmi.re.kr)
- 지원신청서 평가 및 기타
 -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 60점 이상 획득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평가결과 공개 : 2012년 5월 중 KMI 홈페이지 또는 선정기업에게 개별연락
 -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- 필요 시 현지출장 및 체재비 등 실비 등의 부담 요청 가능. 단, 선정 시 사전협의 예정
 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02-2105-2897/2982)로 문의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종		
	소재지				
	매출액 (전년도)		당기순이익 (최근3년)		
프로젝트 개요	사업명				
	국가/지역				
	주요사업 내용				
	프로젝트 담당자	부서		Tel	
		직위		Fax	
		성명		E-mail	
프로젝트 주요내용	<p>개략적 기술 (사업의 목적과 요약 내용 및 예상 규모, 5~10줄 이내 기술)</p> <p>※ 별첨 자료요청</p> <p>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~10쪽 이내로 작성하여 별첨으로 송부(사업 배경·목적, 세부사업내용, 사업기간, 추진경위, 예상규모, 합작 파트너 및 특이사항 등)</p>				
<p>국제 물류투자분석센터에 기초타당성조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</div> <p>국제 물류투자분석센터장 귀하</p>					
첨부서류 목 록					